

는 것. 수명이 다해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나무에 치료 대신 놓아줌을 택한 저자의 끄덕임은 가야 할 때를 아는 한 인간의 승고함으로까지 표현된 것이다. 정답은 없다. 우린 각자가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곁보기에 답답해 보여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바보가 되리라 다짐한 노간주나무 같은 H 선배, 얼굴만 봐도 웃음을 유발하는 생강나무 같은 J 후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고자 하는 공직 생활을 묵묵히 해나가신 회양목 같은 P 계장님. 각자의 모습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결국 전나무처럼 함께 어우러져 역경을 이겨내고 굳건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라는 걸. 중요한 건 나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라는 것을…

오늘도 찾아온 8시 50분, ‘난 오늘 동료와 민원인에게 어떤 나무로 기억될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상상이 그간의 긴 한숨을 대체한다. 문득 생전生前 할머니께서 병상에 계시던 ○○병원 앞 이팝나무가 떠오른다. 피는 꽃 모양이 밥공기가 수북이 담겨 있는 걸닮아서 예전에는 ‘이밥나무’라고 불렸다고 한다. 못 먹어 배고팠던 시절 이팝나무에 꽃이 많이 피길 바랐던 할머니의 소원처럼 나 또한 그간의 공직 생활 동안 가꾼 나무를(동료·민원인과의 관계) 아끼고 잘 가꾸어 나만의 꽃을 계속 피워 나갈 것을 소원한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나무에서 가장 높이 솟은 가지인 우듬지처럼 가장 먼저 비를 맞고 햇빛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동료·담당자로 기억되고 싶다.

5년 만에 목백합 앞에 섰다. C 팀장님이 아른거린다. 필요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동료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존중과 배려의 원천을 잊지 않은 그 절개가 전자기기에만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을 나무로 향하게 한다. 목백합의 뜻을 찾아본다. ‘순수’공직에 입문한 첫날 다짐했던 내 모습이 그립다고 나무가 내게 속삭이고 있다.